

# Pax Mongolica

양재현 (梁在賢)<sup>1)</sup>

Pax Mongolica 시대는 원나라 세조인 쿠빌라이 (1215~1294, 재위: 1264~1307)와 제2대 황제인 성종 테무르 (1265~1307, 재위: 1294~1307)가 통치하던 시대인 1264년~1307년 기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기간 원나라는 막대한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세계 제국이었다. 현재는 미국이 소련 공산정권이 붕괴된 1992년부터 지금까지 Pax Americana 시대를 누리고 있다. 이에 중국이 미국에게 패권의 자리를 도전하고 있다.

막강한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고가의 무기 판매 (예를 들면, 전투기), 금융수입, 부자들의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천연자원과 상품 수출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여튼 향후 10년 후에는 세계 국제 정세의 판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Kublai는 1260년 음력 6월에 대원 몽골국 (Yeke Yuan Mongol Ulus)를 세우고 대칸 (Great Khan)의 자리에 올랐다. 연호를 중통(中統)으로 정했지만, 1264년 음력 7월에 지원(至元)으로 개칭하였다. 그는 뛰어난 전투 지휘관이고 강렬한 개성, 탁월한 지도력 및 판단력, 착실함과 계획성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아래의 정책을 기반으로 군사와 통상이 하나가 되는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국했다.

- (1) 초원의 막강한 군사력과 최신 무기 개발
- (2) 행정 기구와 재정 기반의 확립
- (3)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물류 루트를 건설하고 자유무역과 중상주의 정책을 실행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 특히 해상무역을 장려함.

문명의 파괴자로 악평을 받고 있는 그의 조부 칭기스칸이 세계의 정복자라

---

1) 梁在賢 高等研究所 (Yang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소장 및 인하대학 명예교수

면 그는 제 2의 세계 제국의 창업자이자 세계의 개조자라고 말할 수 있다. 1271년에 국호를 대원(大元)으로 정했다. 여기서 대원은 위대한 텡그리의 나라 즉 위대한 근원을 의미하고 있다. 텡그리는 모든 것의 근원을 뜻한다.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상도(上都 ; 開平府)로 이전하고 남쪽에 또 다른 수도인 대도(大都; 현재 북경)를 건설하여 양경제(兩京制)를 실시했다. 대도의 남쪽에는 관청가, 중앙에는 궁성, 북쪽에는 경제 특구를 설치하였다. 궁성의 중앙에는 몽골 왕족과 귀족들만 출입할 수 있으며 Ger를 설치하여 몽고 초원의 생활 방식으로 연회를 열고 활쏘기, 사냥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궁성을 자금성(紫禁城, forbidden city)라고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이때부터 대원은 초원의 유목사회에서 농경의 정주사회로 변하고 있었다.

이란계 Muslim의 상업세력과 연대를 맺고 유능한 페르시아계 Muslim들을 경제 재정 관료로 임명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였다. 쿠빌라이 시대에는 체계적인 역참(yam) 제도 (오늘날의 인터넷)가 수립되었고 강남의 여러 항구(杭州, 蘇州, 揚州, 泉州, 廣州)들을 개항하여 해상무역을 장려하였다. 대원 제국은 강남에서 소금세와 상세(商稅)를 징수하여 제국의 튼튼한 재정을 확보하였다. 은을 기축통화로 정하고 소금세와 상세를 은, 염인(鹽引), 지폐로 징수하였다. 여기서 염인은 소금 교환권의 판매대금으로 오늘날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통화제도의 시발점이 된다. 13세기 후반에는 대원 Ulus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제국이었다. 현재의 미국과 다름 없다. 해상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하였다. 그 당시의 해상 무역의 통로

대도(大都) → 통주(通州) → 직고(直沽; 天津) → 항주(杭州) → 천주(泉州)  
→ 광주(廣州) → 동중국해 → 남중국해 → Malacca 해협 → 인도양  
→ Persian Gulf → 홍해 (Red Sea) → Hulegu Ulus → 지중해 → 에게해  
→ 다다엘스해협 → 마르마라해 → Bosphorus 해협 → 흑해(Black Sea)  
→ Azov Sea → 불가강(Volga)

또는

대도(大都) → ... → 지중해 → 서유럽(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의 항로를 거쳐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원나라는 무슬림 상인 집단들의 특허회사라고 할 수 있는 Ortogh의 설립을 보장하여 주었다. Ortogh

에 속해있는 상인들은 특혜를 받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국가와 몽골 왕족들은 Ortogh 에 투자하여 많은 이자 수익을 챙겼다.

몽골 왕족과 귀족들이 여러 문화, 종교, 문명을 수용하며 서서히 동화되어 가면서 원나라는 군사대국이면서 경제 중심 국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몽골 왕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다. 1260년대에는 동남쪽에는 대원, 서남 아시아에는 Hulegu Ulus, 서북 유라시아에는 Golden Horde, 중앙아시아에는 Chagatai Ulus가 탄생되어 막대한 영토를 지난 몽골 제국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Pax Mongolica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여 종교 탄압이 없었고 인종 차별도 거의 없었다. 물론, 몽골인, 페르시아인, 거란인, 위구르인, 투르크인들은 특별히 대우를 받았다. 고려 제 24 대 원종 (元宗, 1219~1274; 재위 1259~1274) 때 대원의 속국이 되었다. 고려 제 25 대 충렬왕 (忠烈王, 1236~1308; 재위 1274~1308) 은 쿠빌라이 칸의 딸인 제국대장공주를 배우자로 받아들여 쿠빌라이의 사위가 되었다. 제 29 대 공민왕 (恭愍王, 1330~1352; 재위: 1351~1374) 도 몽골 왕족인 노국대장공주 (魯國大長公主)를 배우자로 맞이하였다. 노국공주는 쿠빌라이 칸의 증손녀이다.

쿠빌라이 칸의 집권 때에 일본, 자바 원정이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죽은 후 손자인 성종(成宗 테무르 1265~1307; 재위 1294~1307)이 칸(Khan)으로 즉위하면서 일본과 동남아 원정을 즉시 중단하고 조부 쿠빌라이 대칸의 정책을 이어 받았다.

**[몽골의 고려 침략]**

	[기간]	[몽골군 지휘관]
1차	1231.08 ~ 1232.01	사르탁
2차	1232.08 ~ 1232.12	사르탁
3차	1235.윤7 ~ 1235.10	탕구트
	1236.05 ~ 1236.12	탕구트
	1238.08 ~ 1239.04	탕구트
4차	1247.07 ~ 1239.04	아무가
5차	1253.04 ~ 1254.01	예쿠
6차	1254.07 ~ 1259.04	자릴타이

무인정권(1170 ~ 1270)

### [고려왕]

- 18代 의종 (毅宗, 1127 ~ 1173, 재위 : 1146 ~ 1170)
- 23代 高宗 (1192 ~ 1259, 재위 : 1213 ~ 1259)
- 24代 元宗 (1219 ~ 1274, 재위 : 1259 ~ 1274)
- 25代 忠烈王 (1236 ~ 1308, 재위 : 1274 ~ 1298, 복위 : 1298 ~ 1308)  
(쿠빌라이의 사위, 제국공주와 혼인)
- 26代 忠宣王 (1275 ~ 1325, 재위 : 1298, 복위 : 1308 ~ 1313)  
(계국공주와 혼인)
- 27代 忠肅王 (1294 ~ 1339, 재위 : 1313 ~ 1130, 복위 : 1332 ~ 1339)
- 28代 忠惠王 (1315 ~ 1344, 재위 : 1330 ~ 1332, 복위 : 1339 ~ 1344)
- 29代 忠穆王 (1337 ~ 1348, 재위 : 1344 ~ 1348)
- 30代 忠定王 (1337 ~ 1352, 재위 : 1349 ~ 1351)
- 31代 恭愍王 (1330 ~ 1374, 재위 : 1351 ~ 1374)
- 32代 禔王 (1365 ~ 1389, 재위 : 1374 ~ 1388)
- 33代 昌王 (1380 ~ 1389, 재위 : 1388 ~ 1389)
- 34代 恭讓王 (1345 ~ 1394, 재위 : 1389 ~ 1392)

### [몽골제국 칸]

- 1代 징기스칸 (1162 ~ 1227, 재위 : 1206 ~ 1227)
- 2代 우구데이 (1186 ~ 1241, 재위 : 1229 ~ 1241)
- 3代 구육 (1206 ~ 1248, 재위 : 1246 ~ 1248)
- 4代 몽케 (1209 ~ 1259, 재위 : 1251 ~ 1259)
- 5代 아릭부케 (1219 ~ 1266, 재위 : 1260 ~ 1264)  
쿠빌라이 (1215.09.23. ~ 1294.02.18., 재위 : 1294.02.18.)

조치 (1182 ~ 1227), 차가타이 (1183 ~ 1242), 툴루이 (1192 ~ 1232),  
홀레구 (1218 ~ 1265, r: 1259 ~ 1265), 바투 (1205 ~ 1255, :1227 ~ 1255),  
베르케 (1208 ~ 1266, r: 1257 ~ 1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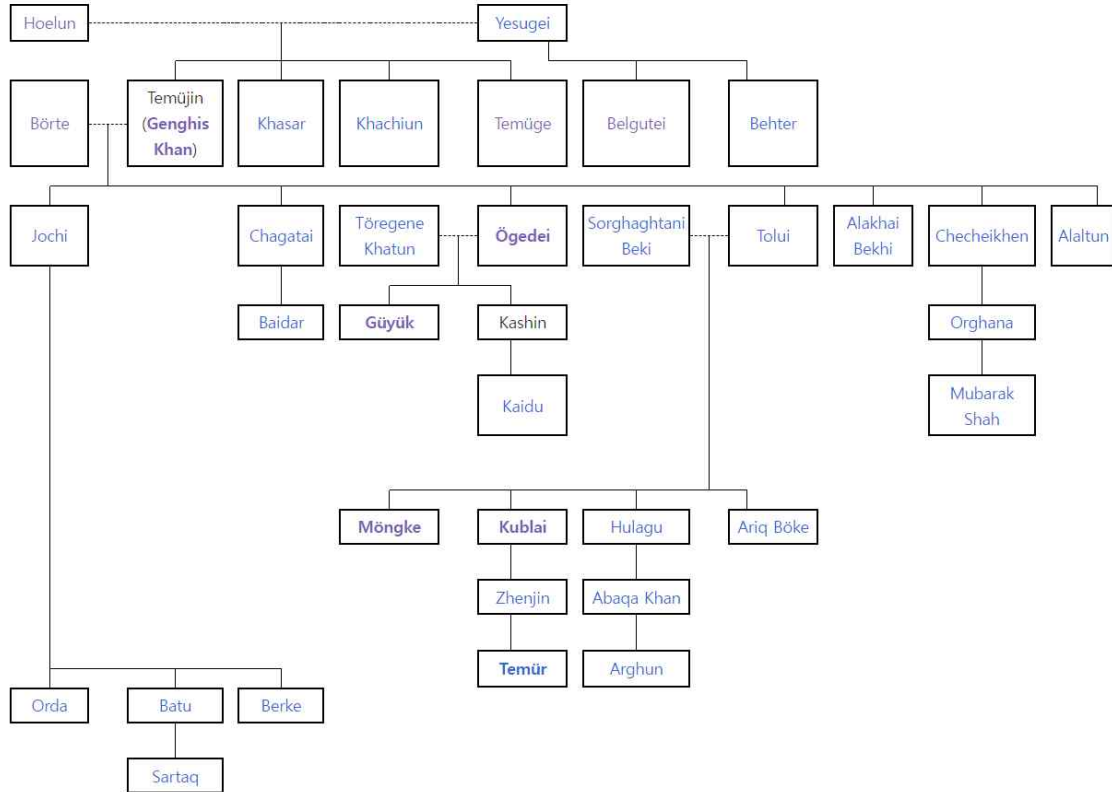
1218년 : 몽골과 고려가 연합하여 흑거란 격멸함

1224년 : 몽골 사신 피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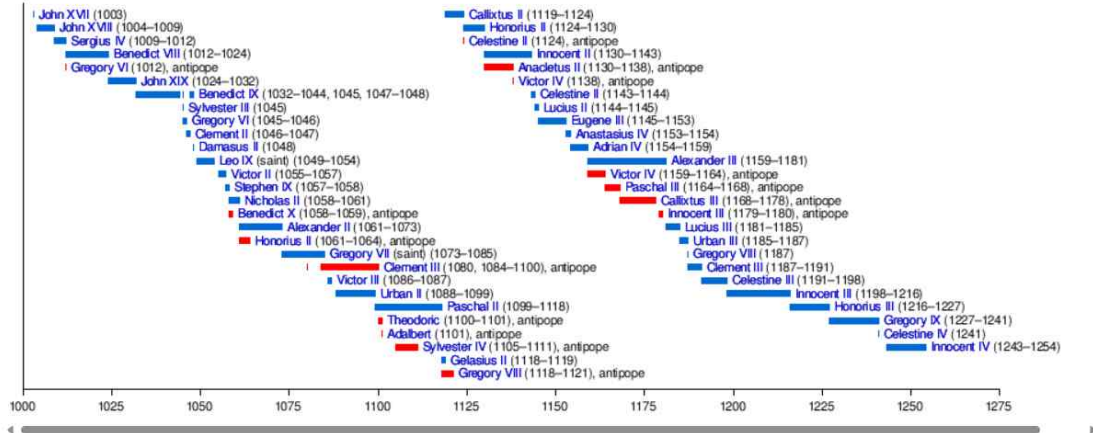
1232년 : 강화도 천도

1238년 : 항룡사 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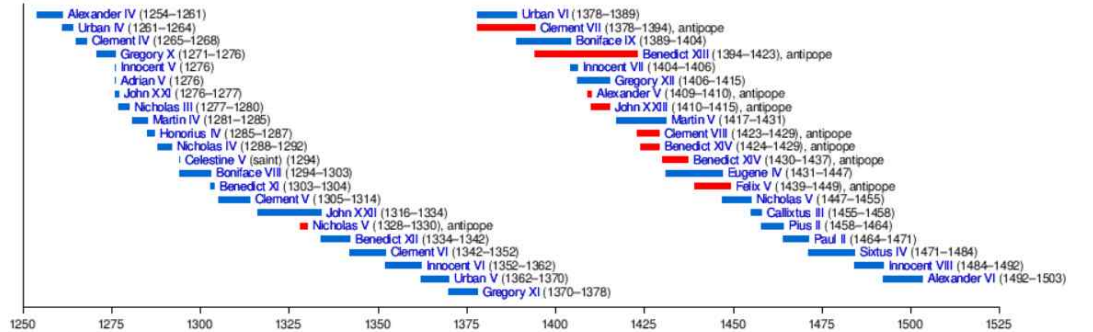
Only selected, prominent members are shown. *Khagans* (Great Khans who were rulers of the whole empire<sup>11</sup>) are in **bold**.



1003–1254 [edit]



1254–1503 [edit]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opes\\_\(graphical\)](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opes_(graphical))

<https://www.tomshardware.com/news/jensen-huang-and-lisa-su-family-tree-shows-how-closely-they-are-related>